

국어의 통사적 중의성

서울대 언어학과

이정민

0. 중의성(ambiguity)에는 어휘적 중의성, 통사적(구조적) 중의성, 의미상의 중의성이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통사적 중의성을 parsing의 측면과 관련시키고 참치로 한다.¹ 위의 세 가지 중의성은 그 구분이 명확치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사구조와 관련된 중의성은 모두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서는 통사구조의 복잡성과 관련된 파싱에 대한 일반 논의를 풀어 보고, 우리 말에서 통사적 중의성을 나타내는 예문들을 찾아내 검토함으로써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1.1. 먼저 파싱과 관련하여, 우리말은 어순상 SVO 언어로서 중앙내포(center-embedding) 구문을 쉽게 생성하나, 다음 (1)과 같이 어휘적 주어와 셋 이상 연속해 나오면 어느 주어가 어느 동사와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어 파싱이 어려워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장이 된다. 그러나 (2)와 같이 두번째 이후의 주어가 첫번째 주어와 공지시적(coreferential)이면서 빈 범주일 때는 여러 개(여기서는 5개)가 되풀이 돼도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다(C. Lee 1973:116).

- (1) a. [Subj [Subj [Subj V]₁ V]₂ V]₃
 b. ?? 철수는 영희가 그 아이가 떠난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2) 철수는 자기(자신)을 비판하기를 계속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공개한 것을 후회했다.

(1)의 경우 다시순서짓기(reordering)를 해서 예컨대 가운데 주어와 가운데 동사를 연결시키면 이해가 쉬워진다(예:철수는 그 아이가 떠난 것을 영희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1b)에서 '철수_는(Top)'이 '철수_가(Nom)'로 바뀌면 세 주어가 모두 같은 주격(Nominative) 표지를 갖게 돼 더욱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

1.2.1. 영어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 3개 이상의 that 주어절이 겹치거나 NP가 겹치면 다음과 같이 파싱이 불가능하다.

- (3) a. That that that two plus two equals four surprised Jack
 astonished Ingrid bothered Frank.
 b. The girl the man the boy saw kissed left.

물론 (3a)는 위치(extrapolation)를 시켜 'it ...that' 구문으로 바꿔야 하고, (3b)와 유사한 구문으로는 두 NP의 연속까지만 허용된다. 위와 같은 예를 들어 영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자연언어의 파싱을 하는 원리를 최초로 논한 것이 Kimball(1973)이다. 자연언어의 파싱은 꼭대기에서 아래로의(top down) 열거리듬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고, 종단(terminal) 기호는 가장 낮은 비종단 고점에 연관시키는 것이 최적이라는 원리를 제시했다(right association 원리). 이에 따르면 오른쪽 종단일이 새로 들어 올 때 기존의 것 중에서 오른쪽의 가장 낮은 비 종단 고점에 붙게 되어 다음 a가 b로 (NP에서 롤아내기에 의해) 바뀔 수 없다.

- (4) a. The woman that was attractive took the job.
 b. The woman took the job that was attractive.

그러나 이 원리는 PP나 부사의 연결에 문제를 일으킨다. 예컨대, 다음 (5)에서 PP on the corner 를 바로 앞의 NP에 먼저 매달게 된다. 물론 여기에 통사적 중의성이 개재되나 선호되는 해석이 있게 된다. 이는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5) They positioned the table on the corner.

1.2.2. 이어 Frazier와 Fodor (1978)가 두 단계 파서(분해기)를 제의한다. 예비적 구절싸개(Preliminary Phrase Packager)인 '소세지 기계'는 어휘적, 구절적 고점을 할당하고 두번째 단계인 문장구조 감독자(SSS)는 고점들을 완전한 구절 표지(P-Marker)로 결합시킨다. 첫 단계는 6 내지 7 단어 창(window)에 한정시킴으로써 근시성(short-sightedness) 즉 국부적 연결의 선호를 가능케 하며 이것이 오른쪽 연결(RA)을 초태하고 그것도 부사류가 걸을 격하는 등의 거리를 가진 때에, 또는 앞의 성분이 긴 때에 또는 연결을 기다리는 일 자체가 긴 때에 주로 나타남을 보인다. 다음 예를 보자.

(6) Joe bought the book that I had been trying to obtain for Susan.

1.2.3. 이러한 연결에 유의하지 않으면 번역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다음 번역문의 예를 보면, 원어인 영어에서 부사류인 '...위하여'의 연결이 달리 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여기서는 'CMS...' 앞으로).

(7) 사용자는 CMS/DOS 환경으로 들어갈 때 DOS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유용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 (KSHALT & Korean Parser 1987 중간보고)

이밖에도 RA를 부작격 적용해서 나온 다음과 같은 예도 볼 수 있다. 여기서 for more flexibility는 바로 앞의 NP가 아니라 동사 reassign과 함께 VP에 연결되어야 한다.

(8) 사용자의 설치는 더 많은 유용성을 위한 특권 계층 그룹에 명령어를 또한 재할당할 수 있다. (위 중간 보고)
(Your installation can also reassign commands to privilege class groups for more flexibility.)

1.2.4. 그 뒤 Milsark (1983)는 소세지 기계에서 강조된 일의 길이보다는 국부성 제약이 통사구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 예에서 PP인 to Mary가 동사 read와 먼저 연관되는 것도 구조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9) John read the note, the memo and the letter to Mary.

이 PP가 NP인 the letter와 연관되는 부차적인 해석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NT시에 절(clause) 형성이 필요하다(예: Mary에게 온 편지; 'Mary에게'의 편지'는 어색함). 명사 앞의 관형형 때문에 한국어에는 상응하는 중의성이 없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아래로의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의 책략을 혼합한 파서(분해기)인 차트(chart) 파서가 제의돼 입력과 연관되는 변(edge)을 갖춘 하위일의 도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1.2.5. 한편, Ford, Bresnan과 Kaplan (1982)은 쓰세지 기계(SM)에 반대가 되는 다음과 같은 중의적인 문장을 예시했다.

(10) Forgetting she shouldn't sometimes she ran.

여기서 부사 sometimes는 forgetting과 연관될 수도 있고 뒤의 ran과 연관될 수도 있다. 영어에서 S' 보문이 주절의 맨 끝에 위치한다는 것과 국부적 연결이 어휘항목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SM이 간과했다고 보고, 이들은 기능, 어휘적 정보가 통사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본해기를 재의했다. 그리하여 통사적 문닫기 (closure) (범주 A는 그의 직접 성분들이 아닌 다음 성분이 본해(parse)되자마자 닫힌다) 원리로 어휘적 선호, 통사적 선호 등을 내놓았다. 전자는 구절구조 규칙의 (다시쓰기) 확대로 몇 가지 가능성이 나왔을 때 해당 술어(동사)의 가장 강한(strongest) 어휘적 형태와 부합되는 확대를 우선 선택한다는 원리다. 예컨대 want는 want [(SUBJ), (OBJ), (PCOMP)]가 want [(SUBJ), (OBJ)]보다 강하기 때문에, John wanted [the dress on the rack]에서 PP를 OBJ NP에 묶어 본담는 해석이 선호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동사 position의 경우는 position [(SUBJ), (OBJ), (PCOMP)]가 position [(SUBJ), (OBJ)]보다 강하기 때문에, 앞의 예문 (5)에서 PP 'on the the corner'가 앞의 NP에 붙지 않고 PCOMP로 독립되는 해석이 우선한다. 이는 환호할 만한 원리지만, 다만 맥락에 따라 선택의 선호가 달라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중의성은 우리 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통사적 선호의 원리는 빈도나 범주 수준에 따른 힘의 순서로 다시쓰기의 후보 범주들에 매겨지는 순서를 당연 값(default)으로 받아 들인다 (예컨대, NP의 확대에서는 Det N이 우선한다든지). 이에 따라 that silly old-fashioned... 가 S'보다 NP 해석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S > NP VP가 S > S' VP보다 강함: NP > S'도 가능한데 NP에서는 Det가 나오는 확대가 우선함).

2.1. 그러면 이와 같은 여러가지 본해의 원리를 엄두에 두고 이제 우리 말의 구조적 중의성의 예를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관형격(prenominal)수식의 중의성을 들 수 있겠다. 겹속 명사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중의성이 있다. 예를 보자.

- (11) a. 돈 많은 과부와 홀아비
 b. 귀여운 소년과 소녀 (cf. 귀여운 소녀와 선생님; 엄격한 아파와 어린이)

구조보다 문화 배경 때문에 '돈 많은'이 '과부'에 붙는 경향이 있다. 언어(collocation)상의 제약 때문에 앞의 NP에만 걸리는 예도 있다 ((11b) 괄호 안). 다음은 관형격 수식어가 겹칠 때의 중의성을 보여 준다.

- (12) a. 오래 된 우물 길의 성벽
 b. 아름다운 극동의 나라 (c. 조용한 아침의 나라 d. 조용한 경치의 나라)

(12a)는 종의적인데, 이를 해소하려면 '우물 길의'를 앞으로 옮기거나, '성벽' 앞에 다른 관형어 (예: 높은, 그)를 넣는 방법이 있겠다. (12 c,d)는 '아침의 조용한 나라' 등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의 명사에 걸리는 해독이 남는다.

앞의 (11)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복합어의 경우에는 앞의 수식어가 앞의 명사에 연관될 수 없다.

- (13) a. 굉장한 고기잡이 ('-이'는 N\VP 범주로서 FC, FA 로 N이 된 '고기잡이'가 '굉장한'을 받아 들어 NP 구성)
- b. 굉장한 해돋이 ('-이'는 N\S 범주)

2.2. 부사적 수식의 종의성

부사류(부사, 후치사구)가 어느 절에 연관되느냐에 관한 종의성이 있다.

- (14) a. 어제 철수가 영희가 떠났다고 말했다.
- b. 철수가 어제 영희가 떠났다고 말했다.
- (c. 철수가 영희가 어제 떠났다고 말했다.)

이 예에서 부사 '어제'는 더 높은 주절의 VP에 우선적으로 걸리고 내포문에는 걸릴 수 있다 해도 지엄적으로만 걸릴 수 있는(?) 종의성을 유발한다.

(14b)와 같이 부사가 두 주어 사이에 놓이면 종의성은 좀 더 분명해진다. 그러나 부사가 내포문의 주어 다음 위치로 들어 가면 그 영향권(scope)은 내포문 안으로 제약돼 종의성이 해소된다. 이 점은 SVO 어순인 영어에서 맨 오른쪽의 부사가 국부적으로 최하위절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면서 상위절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우리 말은 머리어(Head) 마지막(final) 언어로서 부사류가 (다른 어느 요소도) 그 다음 위치에 쓸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영어에서도 절 사이에 놓인 부사가 종의성을 유발하는 공통점을 보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위 (10) 참조).

2.3. 여러 겹 묶기(multiple binding)의 종의성도 있다. 즉 다음 예에서처럼 재귀사 '자기'가 선행사로서 상위절의 주어나 하위절의 주어에 종의적으로 묶이는 가능성이 있다.

- (15) 영희는 수미가 자기를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4. 관계절과 화제(Topic)구분 등의 의미역할(theta-role) 종의성을 보기도 한다. 먼저 우리 말의 관계절에는 관계절 머리어와 공지시적인 영형(null) 논항이 있게 마련인데, 그 논항이 어느 의미 역할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종의성의 문제가 있다. 예를 보자.

- (16) a. 김영희는 참 배울 것이 많은 여자다.
- b. 저는 별로 들을 것이 없는 연사입니다.

(16a)는 '(그) 여자한테서'처럼 Source 논항이 영형으로, 또는 '(그) 여자가'처럼 Agent 논항이 영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의성을 지니고 있으며 (16b)도 Source와 Agent 사이에 종의성이 있다. 화제구분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거나 생략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예를 보자.

(17) 영희는 상을 지웠다.

여기서 목적어 '상'이 Theme으로 역할할 경우 상 자체를 치우는 것이 되며, Source에서 나온 의미로 볼 경우 그 상에서 점시 등을 치운 것이 된다.

2.5. 특수조사로 인한 문법 기능상의 중의성. 다음 예를 보자.

(18) 철수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서 앞의 Topic 표지는 문법상의 주어에서도 목적어에서도 올 수 있고 이에 따라 도의 문법기능은 그와 반대가 된다.

2.6. 무표지로 인한 중의성. 다음과 같이 격조사가 없는 경우에도 중의성이 생긴다.

(19) 철수 영희 싫어해.

여기서 일차적으로 '철수가 영희를 싫어해'의 해석이 나오지만 또한 문두에 생략된 주어가 있는 경우 '철수와 영희를'의 뜻으로 모두 목적어가 되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희가 철수를 싫어하는 해독은 거의 나오지 않을 만큼 격조사가 없는 경우 우리 말의 어순이 굳어졌다고 본다. '-하다'가 붙지 않은 심리술어의 경우도 비슷하다. Cf. '영희 그 아이 좋아해.' 그러나 현재 1인칭일 경우는 위치에 관계없이, 또 생략된 경우에도 그것이 Experiencer가 된다 (예: 그 사람 나 싫어; 나 그 사람 싫어; ♯ 그 사람 싫어; 과거: 영희 그 남자 싫었어 (영희 Experiencer, no ambiguity); 그러나, 그 남자 나 싫었어 <중의적>).

3. 'Garden Path 문장과 결정론적 가설 (Marcus 1980)

- (20) a.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 b. [따뜻 고성은 절대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 c. [그 일이 왜 하필 지금 터졌느냐] 하는 의문이 남아 있다.
- d. [연내에 예술단을 교류하자]는 제의가 있었다.
- e. [식사 후에 응접실로 나가자]고 총무가 말했다.
- f. [그것을 제가 깨뜨렸습니다]만 본의는 아니었습니다.

- (21) a. niwa-ni aru ki-ga (중의적: prenominal/finite)
 정원에 있(는, 다) 나무가
- b. isya no tomodati (중의적: appositive/possessive)
 의사 (언, 의) 친구

(22) 철수가 영희에게 말한 것 [koto] (중의적: thing/fact)

4. 형식언어와 달리 자연언어에서는 중의성을 피할 수 없다. 국어에 나타나는 구조적 중의성을 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에 비추어 본래 책략의 관점에서 개관했다.

<주>

1. 이 논문은 UCLA 재직 중(86-88)에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로서 87년 7월 22일 Stanford Colloquium on Korean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서 발표한 것을 손질한 것임.

<참고 문헌>

- Ford, M., J. Bresnan & R.M. Kaplan (1982) 'A Competence-Based Theory of Syntactic Closure' in J. Bresnan(ed.)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The MIT Press.
- Frazier, L. and J.D. Fodor (1978) 'The Sausage Machine: a New Two-Stage Parsing Model,' Cognition 6, 291-325.
- Kang, Beommo (1988) Functional Inheritance, Anaphora, and Semantic Interpretation in a Generalized Categorical Grammar, Brown U. Dissert., 탑출판사.
- Kimball, J. (1973) 'Seven Principles of Surface Structure Parsing in Natural Language,' Cognition 2, 15-47.
- Lee, Chungmin (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Indiana U. Dissert., 범한서적.
- Marcus, M.P. (1980) A Theory of Syntactic Recognition for Natural Language, The MIT Press.
- Milsark, G. (1983) 'On Length and Structure in Sentence Parsing,' Cognition 13, 129-134.
- Wehrli, E. (1987) Lecture Notes at UCLA.
- Whitelock, P.J. (1988) 'A Feature-Based Categorical Morpho-Syntax for Japanese' in U. Reyle & C. Rohrer (eds.) Natural Language Parsing and Linguistic Theories, D. Reidel.